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오랜 시간 꿈꿔온 법조인의 삶을 시작하면서...

김희중

- 건국대학교 법대 졸업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졸업
- 삼보컴퓨터 법무팀 사원 근무
- 現) 법무법인 바른길 변호사



I. 들어가며

햇살이 따스한 오후에 저는 광주의 한 법무법인에서 연수생활을 하며 사무실 제 책상에 앉아 형사기록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낮익고 반가운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考試界 편집국장님의 전화였습니다. 지난날의 인연으로 다시금 제게 명망높고 오랜 세월 동안 법조계의 입문하려는 분들에게 많은 꿈과 희망을 주었던 考試界에 글을 쓸 수 있는 너무 큰 영광이었습니다. 저 역시 법학과를 입학한 이래 考試界에 올라온 훌륭한 분들의 합격수기를 볼 때면 저 역시 언젠가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꿈이 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저 같이 부족한 사람 역시 법무 분야의 전문가의 첫발인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설레고 들뜬 마음으로 미력한 글을 한 글자 한글자 적어보려 합니다.

Ⅱ.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업생활

전통 있는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으로서 가는 길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내는 길 이 두가지의 기로에서 많은 분들이 각자에게 맞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정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가지의 다른 길이라 보여지는 그 결론은 바로고 올바른 법조인이 되어 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업으로서 법조인은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그 자격이 주어지고, 그 과정을 거친 후에도 끊임없이 자기개발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음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 공부과정이나 방법론 역시 크게 서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우리 모두 각각의 법률에 대하여 이해하고 해석하며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기본적인 틀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격수기에서 법학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게 되는 것은 법학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Ⅲ. 사람이 하는 일하기에 어려운 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자유』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받을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수험생활이 그러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자신의 욕구를 억제해야하며, 학업에 매진해야하는 행동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히 그러한 생활이 수년에 걸쳐 반복되어진다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인간으로서의 외로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께 가장 효과적으로 수험생활의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변호사』라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처럼 역량있고 성실한 분들이라면 어느 분야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어느 순간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를 한 것이지 이 사회에서 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제 역할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지 혼란이 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자격만을 따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의 삶은 불행해지고 변호사의 삶이 아니면 더 이상 저의 삶은 무의미한 것같이 느껴졌고 무기력감과 공부하는 동안 내내 큰 스트레스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육신이 건강하고 저의 마음이 병들지 않았다면 이 사회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법학을 공부하는 내내 이 변호사라는 직업은 저의 길고 긴 삶 속에 하나의 사건에 불과해지고 나의 현재 직업은 학생이고 수험생이니 제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뿐이라 생각하고 마음먹고 나서부터는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고 공부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독자 여러분! 역시 자신의 아름답고 멋진 삶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한 변호사 시험은 작은 사건에 불과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IV. 구체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수험생활의 권유

저 역시 부족한 점이 많아 독자 여러분들이 제가 수험생활에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일기를 쓴다는 느낌보다 제가 생각했던 가장 좋았던 방법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봄

(1)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과 2학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업에 충실하십시오. 개별 법과목들을 가장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수강신청을 한 과목입니다. 이러한 점이 사법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보다 로스쿨 학생들이 유리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법학실력이 뛰어나더라도 3년이 지나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법학실력이 부족한 분이라도 3년이란 시간동안 개별 법학과목들을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법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계획은 있지만 최대한 기간에 합격해야 하는 부담감에 법학과목 한과목을 오랫동안 공부할 시간적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들은 가장 중요시 하여야 할 것이 교수님들의 수업이며 특성화 과목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수험과목을 최대한 많이 수강하여 듣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내용들은 해당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모두 출제자 중 절반 이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님들이라는 점을 상기해보면 저의 말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考試界에 기고된 교수님들의

판례평석이나 모범답안 등을 첨부하여 깊이 있게 공부해 나아간다면 학교수업 뿐 아니라 변호사시험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考試界에서 나온 사법시험 2차 평석은 쟁점과 답안작성의 틀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저같은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이 된 이후에는 일정을 크게 세 번으로 나누어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1) 2학년 겨울방학이 되면서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을 뿐 아니라 흩어져 있던 여러분들의 법학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부터 전국 모의 변호사시험이 시작되고 시험과목 전과목을 섭렵하지 못한 채 시험을 치루기에 불안함이 가득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같은 경우 공법관련 과목들을 1,2학년 때 많이 수강신청하지 않아서 인지 공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시험에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다수의 수험생이 학교공부와 병행하는 과정 (학점관리)에서 시험과목 전과목을 우수하게 잘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기간동안에 저는 개관식 문제집을 보지 않고 주관식 시험인 사례와 기록시험에 더욱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결국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최근 객관식 경향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험과목의 기본서와 판례집을 병행할 수 있는 나만의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을 입학이래로 꾸준히 하였는데 이 시기에 이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마음에 평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시간에 활용하였던 기본서에 언제나 저는 형광펜과 색깔 볼펜으로 밑줄을 그어 회독수를 늘리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교과서를 매번 읽을 때마다 처음부터 정독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1회독이 끝난 후에는 과감하게 형광펜과 색깔볼펜으로 밑줄 작업을 하여 중요한 부분을 빠르게 반복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만약 밑줄 그어진 부분만 읽고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해당 쟁점 부분을 정독하는 것으로 보충해 나아가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과서와 판례집 정리를 하기 어렵다하신 분들은 주변에 교과서 정리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분의 교과서를 빌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회독수가 증가할수록 왜 그 파트에 밑줄을 그었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 역시 친구들에게 교과서를 빌려준 적도 있고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에게 교과서를

빌려보기도 하였습니다.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는 다짐이 여러분을 진정한 법학 실력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작업이 끝난 3학년 여름방학부터는 민사와 형사과목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기에 공법과 선택과목을 준비해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3학년 여름방학부터 변호사 시험 한달전 11월까지

3학년 여름방학은 제게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시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생활에 문제가 생겨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마 이 기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았고 가장 공부를 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공부를 한 날이 열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제2회 모의고사를 보고 난 후에는 병원을 매일 드나들며 집에서 쉬기 일쑤였고 부모님께서도 휴학을 하여 건강을 돌볼 것을 권할 정도였습니다. 독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고민이 생겨 정신이 약해질수록 육체도 망가지기 시작했고 육체가 망가지기 시작하자 정신은 더욱더 한없이 황폐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수험생활에 갑작스레 찾아온 개인적인 문제들은 모두 한번씩은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같이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부모님을 생각하십시오. 자신을 위해서는 일어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일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정신을 차린 뒤에는 객관식 문제집을 꾸준히 풀어나갔습니다. 특히 오전에 객관식 문제집을 풀고 리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문제집 한편을 이틀이나 삼일 사이에 꼭 다 풀고 채점을 끝낸 뒤에 그 다음날부터는 교과서와 함께 리뷰를 함께 하였습니다. 즉 교과서 회독수와 중요파트 작업을 더욱 완성해나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사례집을 교과서로 선택한 과목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고 이론과 사례 정리를 놓치 않고 꾸준히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3) 시험 마지막 한달 간 그리고 시험장에서 치열한 일주일

시험이 한달앞으로 다가오니 많은 생각들이 찾아올 것 같지만 실상 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참 인생의 고민을 겪고 나니 문득 잃을 것이 없다

는 생각이 들어서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로스쿨 생활에 후회가 없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검찰심화수습을 통해 꿈꿔왔던 검사로서의 삶을 간접 체험해보았고, 로클릭 시험에 응시하여 선의의 경쟁도 하여보고, 로스쿨 다니는 동안 훌륭한 친구들을 만나 스터디를 하며 법학을 즐겁게 공부하였던 추억들이 아직 변호사가 되지 못하였지만 만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일 것입니다. 결국 이쉽게 성공이라는 단어로 결말지어지지 아니하였지만 과정이 즐겁고 꿈이 있어 행복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험 한달동안 제가 정리한 낡은 책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았기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낡고 닳고 닳은 책들은 제게 가장 보물같은 존재였고 이 책의 어느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3년간 함께 해온 책들이 시험장에 함께할 저의 벗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책들을 가지고 다니기 위해 시험기간동안 캐리어를 끌고 다녔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듯 싶습니다.

시험 한달간 객관식 문제점에서 중요하고 기억에 나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찢어서 교과서에 끼워넣었고 기출문제집을 다시 한번 빠르게 풀어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미 3학년 1학기에 풀었지만 다시 한번 풀어본 기출문제집은 새롭게 교과서를 읽게 도와준 역할을 하였습니다. 즉 출제자가 선호하고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는 쟁점들이 더욱더 명확히 다가왔고 나름대로 올해 변호사시험에 나올만한 쟁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스터디든 가까운 친구들이든 나올만한 쟁점과 판례들에 대해 끊임없이 서로 의견을 교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수록 자신의 아집에 빠지지 않고 과목별로 중요한 쟁점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치루기 위해 시험장인 건국대학교에 들어서서는 저의 가장 가까운 벗들이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장의 경험은 아마 가까운 선배님들께 듣는 것이 더욱 실감이 날거라 생각하여 생략하고 다만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많은 과목을 객관식, 주관식, 기록시험을 병행한다는 사실은 완벽하게 공부하고 시험에 임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득점 과목이 한 두과목 정도는 있어야 마음 편히 시험에 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 과목 하나하나를 살펴봄

과목별로 공부방법이 다르지는 않으나 각 과목별로 보았던 기본서, 사례집, 판례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객관식 시험대비는 전과목 공통적으로 변호사시험 진도별기출문제집, AURA 변호사시험대비 기출지문정리집, 考試界에서 나온 변호사시험 및 모의고사 풀이집을 보았습니다. 특히 시험에 인접하여 출간하였던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호하시는 서점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름 이후에 출간된 문제집이나 해설집등이 있으니 검색하여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민법은 기본서 선정에 있어서는 정말 오랜 고민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변호사시험에 출제되는 기출문제가 어려운 것도 있었으나 실무과목에 가깝게 출제되고 있다는 점, 판례의 의미와 각 사안마다 적용되는 판례가 반드시 유사판례가 있어 각 판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단순 암기한 경우에는 오히려 시험에서는 낭패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1학년, 2학년 때에는 지원림 교수님 저의 민법학강의를 정독하였고, 시험이 다가오면서 주재별 중요판례를 암기하기 위하여 3학년이 되고부터는 변호사시험 전일까지는 판례집으로 활용하였던 김종복 판사님저, 박기현 강사님 편저의 핵심정리 민법을 5회독 이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채권총론과 각론의 계약법 파트는 수십회독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객관식이 소홀하신 분들은 핵심정리 민법에 나와있는 정도만 숙지하더라도 충분히 만족할만한 득점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례집은 박승수 민법연습이 가장 수험적합적이며, 특히 변호사시험대비로 만들어진 민법연습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윤동환 강사님의 민법의 맥을 참고하여 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2)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의 기본서는 일찍이 이창한 강사님의 통합 민사소송법을 주교재로 하였으나 변호사 시험에 임박하여서는 박승수 변호사님의 민사소송법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법은 결국 소송법이라 실체법과는 달리 다양하게 응용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와 원리만을 이해하면 사례집에 나온 정도 이상의 어려운 문제는 출제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승수 변호사님의 사례집은 다양한 사례마다 약간씩의 차이를 두어 판례의 의미와 소송 유형마다의 차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객관식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례를 다루어 민사소송법 조문까지 암기하고 있다면(소송법의 법조문은 실체법의 법조문 보다 훨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객관식 준비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자신이 있는 과목이었는데 로스쿨 재학 때 수강한 정영진 교수님의 수업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영진 교수님이 수업교재로 사용하신 이시운 교과서와 호문혁 교과서로 이해하신 내용을 정리한 수업 자료는 3학년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3) 상법은 김혁봉 강사의 상법신강과 김순석 교수님, 안성포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활용하신 사례집등을 참조하였습니다. 상법은 특별한 객관식 문제집이나 꼭 마음에 드는 사례집, 판례집이 없었는데 시험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상법에 관심이 있어 판례집을 샀는데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한 구성이었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공저 상법 판례 100선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변호사시험 전에 한번 보았으면 더 좋았을거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4) 형법은 신호진 강사님의 형법요론과 이재상 강사님의 형사법 사례집을 보았습니다. 사시기출문제로 이인규 강사님 저를 보았는데 형사법은 어느 강사님을 보아도 충분하다고 보여줍니다. 저같은 경우는 송헌철 강사님의 형법 교과서가 이해하기 쉽고 깊이가 있어 2학년 때 까지 보다가 형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서 형법요론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신호진 강사님의 형법판례 정리실력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론 설명은 생략된 부분이 많다는 분들도 있으나 이미 이론에 대해 어느 정도 충분히 숙지되었다면 마지막은 형법요론으로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사례집은 이재상 강사님이 좋은 문제를 많이 만드셔서 응용력을 기르는데 좋았고 다만 아쉬운 점은 급히 출간되다보니 답안에 몇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으나 현재 나온 변호사시험 대비로는 이재상 강사님의 로스쿨 사례집이 가장 수험적합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2학년 분들이 계시다면 검찰실무과목은 꼭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법 뿐 아니라 형사법의 전문가이신 검사님들이 파견나와 하시는 수업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제가 다닌 전남대에서는 노로 검사님이 수업을 하셨는데 형사법 분야 연구를 늘 하시던 분이시라 깊이 있고 이해하기 쉽게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실무를 듣고 나서는 형사법이 가장 자신있고 쉬운 과목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5) 형사소송법은 역시 2학년 때는 이재상 교수님의 교과서를 1회독한 후에 정주영 강사님의 형사소송법 강의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재상 교수님 교과서는 형사소송법의 쟁점을 물흐르듯 잘 구성되어 있고 이해하기 좋으나 수험적으로는 정리된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바꾸었습니다. 마지막에 최종정리 형사소송법 (정주형 저)과 검찰실무 1 강의자료, 형사재판실무 강의자료를 활용하였고 검찰실무 자료 중 수사와 전문진술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교재보다 잘 정리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6) 헌법은 마지막까지 고민을 거듭한 과목인데 정희철 강사님의 기본강의헌법을 기본서를 하여 정리해 나아가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객관식 대비로는 좋을 듯 싶으나 사례와 기록시험을 준비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양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3학년 10월경부터 다시 주교재를 바꾸어 정리해 나아갔는데 헌법은 역시 판례와 사례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정희철 강사님의 사례헌법연습과 최근 5년간 헌법 중요판례200을 주교재로 하고 기본강의헌법은 필요한 부분을 절취하여 보았습니다. 다른 강사님들의 교재도 구입하였으나 정희철 강사님의 교재도 너무 많아 추가적으로 더 참고하지는 않았습니다.

(7) 행정법 과목은 처음 접근이 어려운 과목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행정법은 참 재미있고 매력적인 과목이고 다양한 소송기술이 있는 분야라 실무를 하면서도 사건을 해결해 나아가면서도 재미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서는 박균성 교수님과 홍정선 교수님 교과서를 모두 2회독 이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선균 강사님의 행정법 엑기스로 3학년 때 정리해 나아갔는데 교수님들의 견해를 참 잘 정리하시고 마지막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출간한 행정법 엑기스 연습은 정말 좋은 교재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엑기스 연습은 민사법의 박승수 강사님 만큼이나 다양한 사례를 다루어 재학 중에 보았던 김선태 교수님 저 사례집, 이재화 교수님 저 사례집 만큼이나 구성이나 내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수험적으로 작성한 답안은 판례 분량의 아쉬움은 있으나 검토나 문제제기는 인상깊었습니다. 사건으로는 변호사시험에 최적화된 교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법 분야는 특히 기록시험대비가 교재가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정형근 교수님의 공법소송실무를 잘 이해한다면 더 이상 기록시험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각 로스쿨에 개설된 공법실무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8) 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은 참 아이러리한 과목인데 각 조문을 잘 이해하면 쉬운 과목이지만 그러한 알고리즘이 쉽게 잊혀지는 과목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나온 교과서나 강사님 교재들은 변호사 사례대비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학교 수업을 수강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신창선 교수님의 여름방학 특강을 들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시 본 자료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제거래법은 아직 교수님들의 강의력을 따라올만한 강사님들이 아직 없다고 판단되며 향후에 좋은 수험서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V. 글을 마무리하며

변호사시험이 끝난지도 한참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늦어지는 바람에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신세를 지고 살고 있으며 죽기 전에 이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것 같은 마음에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살아가야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꿈꿔온 법조인의 삶을 시작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성취감보다 고마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감과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혼자 공부하기보다 함께 공부하시고 칭찬과 격려를 먼저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서로 공유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의 중요성을 로스쿨에 진학한 후 많이 느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로스쿨에 진학한 후에 저의 곁에서 많은 격려를 하여주었던 부모님과 친구들, 교수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약속드리며 글을 마치고자 하며, 합격수기를 맡겨주신 전병주 편집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독자여러분의 미래에 언제나 행복함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